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전춘성 진안군수, 국회서 예결위 위원 등 만나 현안사업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사진 왼쪽부터 전춘성 진안군수, 허영 예결위 간사)

전춘성 진안군수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 군수는 허영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윤준병, 김영환 예결위 소속 의원을 만나 군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양명 상습침수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진안고원 스마트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설치 △금남호남정맥(사로재) 생태축 복원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전 군수는 지난 12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결위 위원장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 연고 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최종 확정시까지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 목소리로 그리는 무주 미래

군, 청소년참여기구 정책 간담회 갖고 다양한 주제 의견 나눠

무주군은 27일 무주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실에서 '청소년참여기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무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의 청소년들과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주제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활동 성과 발표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청소년 위원들은 무주군 청소년들의 이동권 권리 보장과 안전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아 △무주군 버스 운영 방안 개선, △청소년 보행안전을 위한 통행로 조성 등 청소년 안전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청소년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청소년 정책들이 여러분의 행복과 무주발전을 주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군정에 반영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무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관내 중·고등학생 등 9명을 16기 위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조윤진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6일 진안지역 6개 읍·면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중 신장수-무주영동 선로 관련 지역 6개 읍·면(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주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노선의 향후 예측 방향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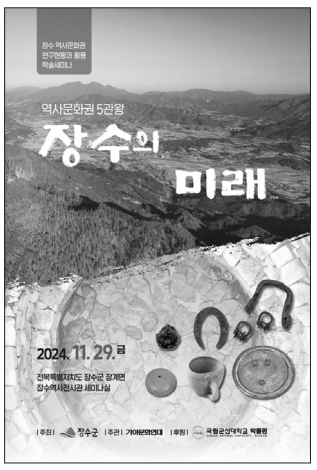
송전선로 설치는 지역주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인 만큼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객관적 설명과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경과 지역 주민조차도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현재 진행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예정인 신임실-신계룡,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9일 부귀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장단연합회, 양수발전유치위원회,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26일까지 11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2월 11일 14시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전체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역사문화권 5관왕 장수의 미래

군, 29일 학술세미나 개최



장수군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장수역사전시관(장계면 소재) 1층 세미나실에서 '역사문화권 5관왕 장수의 미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주관하고 가야문화시민연대(회장 이춘구)가 주최,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관장 곽장근)이 후원하는 행사로, 단순한 학술적 성과 발표를 넘어 역사문화의 강점을 활용해 장수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수군은 활발한 학술연구를 통해 가야와 백제, 신라와 후백제 그리고 마한까지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5개 문화권에 포함되는 조사성과를 밝혀냈다. 또한 동촌리고분군과 침령산성이 국가사적에 지정, 오성리봉화와 삼고리고분군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군은 그동안 백제 변방이자 고대 역사문화의 소외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계를 벗어나, 고대 사회의 각축장, 교두보, 전쟁터로서 뛰어난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지역에 속한 장수군 고대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최 일정에 맞춰 참석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장수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성이 재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수군이 '역사의 맛집'으로 거듭나는 데 역사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첫눈'

지난 밤사이 '첫눈'이 대설로 예고되면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무주 덕유산의 적설량은 8.5cm다.

겨울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명소인 무주 덕유산 정상까지 관광곤도라를 운영 중이다. 곤도라를 타고 해발 1520미터 설천봉에 오르면 정상 향적봉까지 2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 경사도도 높지 않아 노부부나 가족들끼리도 쉽게 상고대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설천봉과 향적봉 일대는 눈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노후 간판정비' 추진

무주군이 무주읍 일원에서 '노후 간판정비사업'(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무주읍 상권활성화추진단 주관으로 추진되는 노후 간판정비 사업은 덕유산과 반딧불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해 야간 경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후 간판정비는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무주읍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단천로(후간도로) 일대 55개 점포 노후간판을 교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읍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노후간판 정비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이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조림 · 조림지 가꾸기사업 완료

장수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벌채구역 및 산지훼손 구역에 대한 '조림 및 조림지가꾸기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림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지속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 능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을 마련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조림 사업은 총187ha에 대해 완료했으며, 경제수조림 132ha, 산림재해방지조림 29ha, 지역특화조림 15ha, 특용조림 11ha에 낙엽송·소나무·상수리·노각나무 등 41만본을 식재했다. 해당 사업에 총사업비 약 13억원이 투입됐으며 봄조림은 3월부터 4월중순까지, 가을조림은 10월에 추진됐다.

또한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21~24년도 조성된 조림지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을 시행했으며, 총1,113ha에 총사업비 약 19억원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림지에는 풀베기와 덩굴 제거를 2~3회 실시해 조림목을 보호하고 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학천지구 통합개발 본격 추진 위한 TF팀 발족

진안군은 학천지구(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발족하고 2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학천지구 통합개발 사업은 도서관, 문예회관, 농촌협약 네트워크센터, 복합문화광장 등을 건립 또는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략기획팀, 문화예술팀, 경관녹지팀, 농촌재생팀, 도시계획팀 등 5개부서 12명의 팀장과 주무관이 참석해 통합개발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진안군 학천지구 통합개발 TF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